존경하는 모하메드 나쉬드(Mohamed Nasheed) 몰디브 대통령님, 바라트 자그데오(Bharrat Jagdeo)가이아나 대통령님, 아킴 슈타이너(Achim Steiner) UNEP 사무총장님과 각계 지도자 여러분, 생명이 움트는 아름다운 봄날, 대한민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지구공동체를 위한 지혜를 모으는 이 자리에, 혜안을 가진 글로벌 리더 여러분을 모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40주년을 맞이하는 ‘지구의 날'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분들의 열성적인 활동으로 하나 밖에 없는 지구에 대한 인류의 각성이 이제 그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는 많은 생명체가 어울려 사는 공동의 집이자, 우리 삶의 행복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그러나 지금, 지구는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유사 이래 인류는 전쟁과 기아 등 많은 요인에 의해 위협받아 왔지만, 기후변화야말로 일찍이 인류가 경험한 적이 없는 가장 거대한 도전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나시드 대통령께서 수중각료회의를 통해 웅변하셨듯,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 국토의 존립까지 위협받고 있는 몰디브가 그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지구 온난화가 진행될 경우, 2050년이면 동식물의 30% 정도가 멸종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자연에는 구제금융이 없다'는 말처럼 이대로라면 지구의, 인류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이 위험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나는 지난 연말 코펜하겐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Me First', ‘나부터 변화하자'고 역설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나의 도덕적 실천으로부터 나옵니다.

나부터 에너지를 절약하고 나부터 온실가스를 줄여야 합니다.

여러분께 환경을 위해 경제를 포기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환경'과 ‘경제'의 양립이 필요하며,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패러다임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건국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녹색기술과 산업을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 키워나가자는 역발상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 매년 GDP의 2%를 녹색분야에 투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0%를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은 온실가스 비의무 감축국가지만,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최고수준의 목표를 아무런 조건 없이 자발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지난 1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두 배로 증가한 우리의 경제구조를 고려할 때, 이것은 매우 도전적인 목표입니다만, 우리는 이런 도전이 국제적 노력을 불러일으키는, “나부터(me first)”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의 녹색성장은 또한 물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자연자원이며, 다른 자원과는 달리 대체재가 없는 만큼, 에너지보다 높은 국가안보 차원(water security)의 문제입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5억 명 이상이 물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 부족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최근의 한 연구에 따르면 신흥국의 물 수요가 급증함으로써, 20년 뒤 전 세계의 약 40%가 만성적인 물 부족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중국의 역대 문명을 꽃피운 황허의 강물이 말라, 바다로 이어지지 못할 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습지가 사라져가고 있고,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아랄해가 갈수록 말라가고 있습니다.

물 부족의 미래를 경고하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대책을 손꼽고 있습니다.

첫째, 물 공급을 확대하라.

둘째, 기존의 물 사용 생산성을 높여라.

셋째, 물 의존도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특히 물 공급 확대와 물 생산성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2030년의 물 부족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야말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생명보호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대표적인 녹색뉴딜 프로젝트입니다.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한국의 강들 역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오염된 주요 4대강을 2급수로 개선하여 맑고 깨끗한 물이 넘실대는 건강한 강으로 되살릴 것입니다.

또한 핵심 수자원을 13억톤 이상 늘려 미래의 물 부족을 완전히 해소하는 동시에 재사용과 효율화를 통해 물 생산성도 함께 높일 것입니다.

오는 2012년 여러분이 한국을 방문하면 그 성과를 눈으로 생생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공포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경영 형태와 삶의 관습을 바꾸고, 종합적인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변화를 주저하게 하는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어, 각 경제주체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녹색산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원자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새로운 녹색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아킴 슈타이너 사무총장님과는 몇 차례 개인적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만, 한국의 녹색 뉴딜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글을 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공한 녹색성장 모델국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그 기대에 보답할 것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저는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범지구적 파트너십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촌 어느 누구도 환경위기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해결책을 찾는 것도 우리 공동의 책무입니다.

저는 국제공조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코펜하겐 당사국 총회에서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의 설치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정부 간 기후변화 패널기구>인 IPCC가 기후변화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면 오는 6월 출범하게 될 GGGI는 장차 기후변화의 도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를 모색하는 국제적 자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 없는 지구도, 지구 없는 인간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제3차 B4E회의에서는 '새로운 글로벌 기후체제'의 필요성에 대해 중지를 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간만이 아니라 지구도 함께 생각하는 'Planet-responsible System (지구 책임적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화석연료 일변도의 문명을 탈피해 지구와 인간이 함께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녹색공존'의 문명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세계 기업인 여러분, 저는 환경 비즈니스를 이끌고 있는 여러분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란 곧 변화를 뜻하는 것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기후변화시대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변화시킬 기업가정신의 주인공입니다.

우리의 녹색성장 역시 궁극적으로, 정부보다 기업가 여러분들이 펼쳐나갈 새로운 세계라고 믿습니다.

21세기 지구가 직면한 환경위기를 극복하고 녹색성장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달성할지는 결국 여러분의 ‘녹색 기업가정신'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과 소비자들은 기업의 이윤창출과 품질뿐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친환경성까지 고려하는 현명한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녹색시장은 더 이상 틈새시장이 아니라 새로운 주력시장입니다.

변화와 적응은 이미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누가 그린오션의 승리자가 되느냐는 누가 보다 빨리 얼리무버(early mover)가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미래를 위한 여러분의 ‘녹색 기업가정신'을 기대하고 지지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로버트 프로스트(Robert Lee Frost)의 싯귀를 되새겨 보고 싶습니다.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

오늘 40주년이 되는 지구의 날을 맞아 인류 모두가 하나뿐인 지구의 소중함과 기후변화의 위기를 거듭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지구를 위한 지금의 노력이 우리 스스로에게,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길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4월 22일
대통령 이 명 박